

2018. 12. 22.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파생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치숫다, 고무신
- ② 새빨갈다, 놀이
- ③ 얽매다, 풋사랑
- ④ 굶주리다, 까막까치

01 ② 현대문법-단어의 갈래: 파생어

② 새(접두사)+빨갈다=파생어, 놀(동사의 어근)+이(접미사)=파생어
[오답 풀이]

- ① 치(접두사)+숫다=파생어
고무(명사)+신(명사)=합성어
- ③ 얽(동사의 어근)+매다=비통사적 합성어
풋(접두사)+사랑=파생어
- ④ 굶(동사의 어근)+주리다=비통사적 합성어
까마귀+까치=통사적 합성어

2. 음운은 의미를 변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다. 다음 중 음운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테’에서의 모음
- ② ‘밤 : /밤’에서의 장단
- ③ ‘가지/바지’에서의 어두 자음
- ④ ‘시름/주름’에서의 첫째 음절

02 ④ 현대문법-음운

‘음운(音韻)’이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분절음소와 비분절음소가 있다.

음운 ㄱ분절음소: 자음과 모음

ㄴ비분절음소: 장단, 성조, 억양, 강세 등

④의 음절(音節)은 발음의 단위로서,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마디를 뜻한다. 음절은 자음과 모음 또는 단독 모음으로 구성된다.

[오답 풀이]

①의 모음과 ③의 어두 자음은 분절음소, ②의 장단은 비분절음소로서 모두 음운에 해당한다.

3. 맞춤법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 정책은 강력한 반대에 ㉠ 부딪혀 공공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공공 갈등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사후적 접근과 예방적 접근이 있다. 사후적 접근은 일단 갈등이 야기되고 확대된 후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방법으로써 조정자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예방적 접근은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인바 합의 회의나 공론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공공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걸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의 양상이 확대되기 쉽다. 따라서 공공 정책을 집행할 때는 사후적 접근 방법보다 예방적 접근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03 ② 국어생활-한글맞춤법

② ㉡ 방법으로써 → 방법으로로서.

제시 문장에서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방법’이라는 자격, 지위의 의미이므로 ‘로써’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ㄱ로써: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ㄴ로써: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오답 풀이]

① (공공 정책은 반대에) 부딪혀

제시 문장은 피동문으로서, ‘부딪음을 당하다’는 뜻이므로 ‘부딪다’의 피동사인 ‘부딪히다’의 쓰임은 적절하다.

‘부딪치다’는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달거나 마주 대다. 또는 달거나 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부딪다’를 강조하는 뜻으로 쓰이는 능동사이고, ‘부딪히다(부딪음을 당하다)’는 ‘부딪다’의 피동사로 그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부딪치다’와 ‘부딪히다’는 주어의 행위가 능동인지 피동인지에 따라 달리 쓰이는데, 주어가 부딪는 행위를 당한 경우라면 ‘부딪히다’로 쓰고, 주어가 능동적으로 부딪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부딪치다’로 쓰는 것이 알맞다.

③ ㉢ (예방적 접근은~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함으로써

제시 문장을 보면 ‘예방적 접근은~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방법(수단)’의 의미이므로 ‘로써’의 쓰임은 적절하다.

④ ㉣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걸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주로 ‘없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무엇을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의 뜻일 때, ‘걸잡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ㄱ걸잡다: 쓰러지는 것을 거두어 붙잡다,

ㄴ걸잡다: 걸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4. 띄어쓰기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주에 √ 온 √ 지 √ 십여 √ 년이 √ 됐다.
- ② 지금 √ 부터는 √ 오는 √ 대로 √ 입장해야 √ 한다.
- ③ 그밖의 √ 사안은 √ 차기로 √ 이관하도록 √ 한다.
- ④ 이 √ 방법은 √ 쇠의 √ 강도를 √ 높이는 데 √ 활용될 √ 것이다.

04 ① 국어생활-띄어쓰기

①은 띄어쓰기가 모두 올바른 문장이다.

• 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 -여(餘):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년(年): 해를 세는 단위로서,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오답 풀이]

② 지금 √ 부터는 → 지금부터는

•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오는 √ 대로(○)



2018. 12. 22.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체언 뒤에 '대로'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하지만, 관형사형 어미 뒤에 '대로'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③ 그밖의→그▽밖의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뜻하는 '밖'은 명사이다. '그 밖의'는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문장에서 관형어가 된다.

④ 높이는데→높이는▽데

'데'가 '곳', '장소', '일',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내고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제시 문장에서는 '높이는 데(에)'로 부사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연결어미 '-는데/-는데'와 의존명사 '데'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는데'가 쓰인 것인지 '곳, 장소, 일,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데'가 쓰인 것인지는 문맥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데' 뒤에 조사 '-에'가 붙을 수 있으면 의존 명사이고, 붙을 수 없으면 어미로 볼 수 있다.

5.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예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았-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 예전에는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받았다.
동생은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 야, 눈이 왔구나.
물건 값이 많이 올랐다.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
(㉢)

- ① 비가 와서 내일 소풍은 다 갔네.
- ② 빗쟁이가 도망가고 없네. 돈은 이제 다 받았군.
- ③ 안 본 사이에 그 증상에서 말끔히 벗어났구나.
- ④ 서재가 왜 이리 어지럽니? 넌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05 ③ 국어생활-한글맞춤법: 사전

③의 문장에서 '벗어났구나'는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2」에 적절한 예시이다.

[오답 풀이]

①의 '갔네', ②의 '받았군', ④의 '혼났다'에 쓰인 '-았-'은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이다.

6. 밑줄 친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은 쉽지 않는 일만 골라 하는 편이다.
- ② 좋지도 않는 취미인데 주말만 되면 난리다.
- ③ 이 세상에서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④ 예쁘지도 않는 화단을 뭐 그리 애써 가꾸니?

06 ③ 현대문법-보조용언의 품사와 활용

보조용언 '않다'는 본동사 뒤에서 '-지 않다' 구성으로 쓰이는 '않다'는 보조 동사이고, 본형용사 뒤에서 '-지 않다' 구성으로 쓰이는 '않다'는 보조 형용사다. 또한 형용사에는 어미 '-는'이 붙지 않고, 동사에는 어미 '-은'과 '-는'이 모두 붙어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은'은 과거의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이고, '-는'은 현재의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붙는다.

③의 문장에서, '늙지'는 동사이므로 뒤에 보조용언은 동사로서 현재의 사실을 의미하는 어미 '-는'이 올바르게 쓰였다.

- 보조용언 '않다'
 - ┌본동사 뒤에서 보조동사
 - └본형용사 뒤에서 보조형용사
-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 '-은/는'
 - ┌동사+관형사형 어미 '-(ㄴ)은/는'
 - └형용사+관형사형 어미 ┌ -는(x)
 - └-(ㄴ)은(O)

[오답 풀이]

①의 '쉽지', ②의 '좋지', ④의 '예쁘지'는 형용사이므로 뒤에 '않다'는 보조형용사이다. 따라서 '은'으로 활용해야 한다.

7. 밑줄 친 '눈'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나는 밤눈이 매우 밝은 편이다.

- ① 혜정이는 눈이 초롱초롱하다.
- ② 혜정이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
- ③ 영수는 조금만 화나면 눈을 부라린다.
- ④ 영수는 눈도 좋은데 멋으로 안경을 쓴다.

07 ④ 비문학-어휘의 문맥적 의미

'밤눈'이 어두운 밤에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뜻하므로 이때의 '눈'은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시력(視力)'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④번이다.

[오답 풀이]

- ①과 ③의 '눈'은 중심적 의미로서,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뜻한다.
- ②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2018. 12. 22.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8.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높임 표현의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한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다. 이는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주체를 높이는 방식, 객체를 높이는 방식, 청자를 높이는 방식이 그것이다.

- ① 혜정아, 선생님께 여쭙 보고 결정해라.
- ② 혜정아,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나가니?
- ③ 영수야, 주말에 할머니 모시고 동물원에 가자.
- ④ 영수야, 새벽만 되면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가실까?

08 ④ 현대문법-높임법

④는 서술어 '가실까'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여서 주격 '께서'와 높임선어 말어미 '-시-'가 쓰인 주체높임법이다.

[오답 풀이]

- ①은 객체인 선생님을 높여 조사 '께'와 어휘 '여쭙'을 사용한 객체높임법이다.
- ②은 객체인 아버지를 높여 조사 '께'와 어휘 '드리고'를 사용한 객체높임법이다.
- ③은 객체인 할머니를 높여 조사 'ㄹ(를)'과 어휘 '모시고'를 사용한 객체높임법이다.

9. 밑줄 친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 말로는 동희가 가장 예쁘데.
- ② 신문 기사에서 내일 오전에는 무지 춥데.
- ③ 내가 옆에 서 봤는데 농구 선수가 크긴 크데.
- ④ 요즘 들어 컴퓨터가 왜 이리 말썽을 일으킨데.

09 ③ 국어생활-한글맞춤법

③의 '-데'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더라'와 같은 의미이다.

[오답 풀이]

- ① 예쁘데→예쁘대
'-대'는 '-대'는 '-다(고) 해'가 줄어서 된 말로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 ② 춥데→춥대.
- ④ 일으킨데→일으킨대
'-대'는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서,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더 알아보기] 어미 '-데'와 '대'

- 1) -데: 과거 직접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더라'의 의미
- 2) -대: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다(고) 해'가 줄어서 된 말.
- 3) -대: 어떤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서,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

10.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중 한 명이 나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소리쳤다.
- ② 겨우내 팽이와 썰매를 타던 눈에는 어느새 물이 넘실거리고 있다.
- ③ 국세청은 사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열람되어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④ 내가 오랫동안 품어 왔던 생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때나 또한 행복할 수 있었다.

10 ① 국어생활-비문의 유형

①의 문장은 큰따옴표가 쓰인 직접인용절이며, 직접인용격조사 '라고'가 올바르게 쓰인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② 접속조사 '와'의 구성으로 '팽이와 썰매를 타던'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이다. 즉 '팽이를 타던+썰매를 타던'의 구성인데, '팽이를 돌리고 썰매는 타던'으로 고쳐야 한다.
- ③ '열람되어지는'는 '되+어지다'의 구성으로 된 이중피동이다. '열람되는'으로 고쳐야 한다. 또는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고쳐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로 고치면 된다.
- ④ 주어가 '생각은'이므로 서술어도 '~된다는 점이다/사실이다/것이다'라는 형식을 갖춰야 매끄러운 문장이 된다. 따라서 '~생각은 ~행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사실이다/사실이다)로 고치면 된다.

11.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 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다.

“월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 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자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하는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다꾸앙과 파가담긴 점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애길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12월 22일 경찰공무원

2018. 12. 22.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 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안이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 봅시다.”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 ① 섬세한 문체와 풍자적 어조를 통해 시대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 ②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제시했다.
- ③ 소외되고 꿈과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하였다.
- ④ 인물들은 구체적인 이름 없이 ‘사내’, ‘안’, ‘나’ 등으로 익명화되어 있다.

11 ① 현대소설-작품의 특징

제시 작품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의 일부분으로서,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인간의 고독과 소외, 의사소통의 단절을 다루고 있다. ①의 풍자적 어조나 시대에 대한 분노 등은 관계없다.

[오답 풀이]

- ② 서로 알지 못하는 세 남자가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발생한 일로, 1960년대 우리 사회의 전형성을 지닌 세 인물을 제시하여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을 강요하는 도시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등장하는 세 인물은 모두 소외되고 꿈과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 ④ 고유한 이름 없이 ‘김’이나 ‘안’ 같은 성씨, 일반명사인 ‘사내’ 등으로 불리는데, 이는 현대성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익명성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또 ‘나’와 ‘안’이 주고받는 대화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라기보다는 독백에 가까우며, 역설적으로 소통의 부재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출전: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1. 해제: 이 작품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인간의 고독과 소외, 의사소통의 단절을 다루고 있다. 1960년대 우리 사회의 전형성을 지닌 세 인물을 제시하여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을 강요하는 도시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핵심정리

1)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2) 배경: ▶ 시간 - 1964년 어느 겨울밤

▶ 공간 - 서울 거리

3) 주제: 뚜렷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도시인들의 방황과 연대감의 상실로 인한 절망

4) 인물 소개

• 나: 스물다섯 살 난 시골 출신의 평범한 인물로 육사(陸士) 시험에 실패하고 구청 병사계에서 근무한다,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 안: ‘나’와 동갑내기로 부잣집 장남이며 대학원생. 삶에 대해 냉소적이

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자기 구원을 시도하는 인물이다.

• 사내: 서른 대여섯 살의 가난한 사내로 서적 외판원이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여관방에서 자살한다.

3.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은 1964년 겨울의 서울을 배경으로 현실에서 소외된 고독한 세 인물이 서로 무심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연대성을 잃은 현대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학원생 ‘안’과 서적 외판원 사내는 결국 1960년대 우리 사회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 인물 유형인 것이다.

4. 줄거리

1964년 겨울, ‘나’는 포장마차에서 대학원생 ‘안’과 우연히 만난다. 자기소개를 끝낸 후 둘은 파리를 사랑하느냐거나 꿈을거리는 것을 사랑하느냐 하는 식의 대화를 나눈다. 잠시 대화가 끊어지고 다시 평화시장 앞 가로등 가운데 켜져 있지 않은 등이며, 단성사 옆 골목의 첫 번째 쓰레기통에 있는 초콜릿 포장지 같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이 아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술을 다 마시고 계산을 하려던 차에 곁에서 연탄불에 손을 찌던 ‘사내’가 대뜸 우리와 동행해도 되겠느냐고 묻는다. 중국집에 가서 요리와 술을 먹으며 ‘사내’는 오늘 낮에 아내가 죽었고,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내를 판 돈 사천 원이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기를 청한다. 우리는 그 돈으로 벅타이를 사고, 굴을 사고, 택시를 잡아탄 뒤 불자동차를 따라가 불구경을 한다. ‘사내’는 남은 돈을 몽땅 불속으로 집어던진다. 통금 시간도 다 되고 돈도 다 썼으니 이제는 가겠다는 이야기에 사내는 혼자 있기가 무섭다며 같이 있어 주기를 원한다.

근처 여관으로 간 우리들은 각자 방 하나씩을 차지하고 잔다. 다음날 아침 ‘안’이 사내가 죽어 버렸다면 나를 깨우고, 둘은 서둘러 여관을 떠난다. 거리로 나와 눈을 맞으며 ‘안’은 우리가 스물다섯이 맞는지,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은지 묻는다. ‘나’는 ‘안’과 헤어지고 버스에 오른다. ‘안’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신분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유의 권리가 신분적 특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로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근대 이전의 전통 사회는 신분 사회이자 통일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역할과 의무가 이미 결정된 사회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대로의 이행은 전통 사회의 권위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증대되는 과정이었다.

(나) 또한 칸트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 명법’을 통해 자신의 윤리학을 구체화했다. 칸트의 정언



명법이란 모든 조건으로부터 독립된 무조건적인 행위 명령을 말한다. 이는 'A는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을 지닌 명제로, 'A가 Y를 원한다면,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가언 명법과는 구분된다. 정언 명법에 따른 행위는 그 행위가 다른 목적에 상관없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때 그 행위를 하는 필연성은 보편적 이성에서 발견된다.

(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칸트의 윤리학은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개인을 완성시킨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칸트에게 있어 자유란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법칙 이외에 어떠한 법칙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외부의 명령뿐만 아니라 본능적 충동 역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칸트는 인간이 본능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보편적 이성에서 따라 행동하는 주체일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이성이란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으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보편적 능력에 근거하여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 규정된다.

(라) 하지만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칸트의 윤리학이 자유와 복종을 동일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정작 이 보편 법칙은 이성에서 선행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인간 자신이 구성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 그 법칙에 복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며, 결국 자유와 복종이 동일시되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렇게 자유가 복종과 일치하게 되면 '타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나타난다는 점을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지적한다.

(마) 따라서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에게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 명법은 보편적 이성에서 근거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 된다. 즉 칸트의 도덕 법칙은 개인적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필연적으로 타당한 보편 법칙이다. 이와 같이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개인으로 규정했으며,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 존재로 인식했다.

12. (가)의 내용에 이어지는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다)-(나)-(마)-(라)
- ② (나)-(다)-(라)-(마)
- ③ (다)-(라)-(마)-(나)
- ④ (라)-(나)-(다)-(마)

12 ① 비문학-단락의 논리적 순서

단락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때는 접속어나 지시어, 반복되는 어휘를 찾는다. 내용에 따라 순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의 마지막 문장 '근대로의 이행은~'

→(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칸트에 따르면~평등한 존재로 규정된다.

→(나) 또한 칸트는~정언 명법에 따른 행위는~필연성은 보편적 이성에서 의 해 발견된다.

→(마) 따라서~정언 명법은 보편적 이성에서 근거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 된다.

→(라) 하지만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칸트의 윤리학이 자유와 복종을 동일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13. 밑줄 친 ㉠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과 그 주장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② 호네프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실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긍정적 자기 관계는 타자의 긍정적 평가에 의존한다. 따라서 타자로부터의 긍정적 반응이 좌절될 경우 인간은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③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13 ② 비문학-내용의 비판적 이해

칸트는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의 내용을 보면, 칸트에게 있어 자유란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법칙 이외에 어떠한 법칙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의 명령뿐만 아니라 본능적 충동 역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②의 내용에서 타자로부터의 좌절, 심리적 상처 등은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법칙 이외에 법칙에도 복종하는 것이므로 칸트의 보편적 법칙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다.

14. 다음 중 ㉠~㉣의 독음이 모두 적절한 것은?

무궁화는 어떤 의미에 있어, 아니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자의 꽃이라 할 수 있겠다. 외인은 혹 우리 한국을 불러 '은자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연유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과연 은자의 나라다운 꽃이 있다면, 무궁화는 따라서 우리나라를 잘 상징하는 꽃이 되겠다. 무궁화는 첫째, 성을 따진다면 결코 여성이 아니다. 중성이다. 요염한 색채도 없고 ㉠馥郁한 방향도 없다. 양귀비를 너무 요염하다 해서 뜰에 넣지 않는 우리 선

2018. 12. 22.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인의 취미에 맞을 뿐 아니라 향기를 기피하여 목서까지 뜰에서 추방한 아나톨 프랑스의 사제도 타협할 수 있을 은일의 꽃이다. 그리고 은자로서의 우리의 선인의 풍모를 잠깐 상상한다면 수수한 베옷이나 무명옷을 입고, 철부채를 들고 조그만 초당 뜰을 거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에 잘 어울리는 꽃으로 무궁화 이외의 꽃을 쉬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뿐 아니라 무궁화는 은자가 구하고 높이는 모든 덕을 구비하였다. 무궁화에는 은자가 대기하는 ㉠俗臭라든가, 세속적 탐욕 내지 ㉡齷齪을 암시하는 데가 미진도 없고, 덕이 있는 사람이 ㉢唾棄하는 요사라든가 망척이라든가 오만이라든가를 찾아볼 구석이 없다. 어디까지든지 점잖고, 은근하고 겸허하여, 너그러운 대인 군자의 풍모를 가졌다.

- ① ㉠풍부-㉡욕취-㉢집착-㉣타엽
- ② ㉠복옥-㉡속취-㉢악착-㉣타기
- ③ ㉠풍부-㉡속취-㉢집착-㉣타기
- ④ ㉠복옥-㉡욕취-㉢악착-㉣타엽

14 ㉡ 한문- 한자 어휘의 득음

- ㉠ 복옥(馥郁: 馥 향기 복/郁 성할 옥): 풍기는 향기가 그윽함
- ㉡ 속취(俗臭: 俗 풍속 속/臭 냄새 취): ㉠세속의 더러운 냄새. ㉢돈이나 헛된 명예에 집착하는 천한 기풍.
- ㉢ 악착(齷齪: 齷 악착할 악/齪 악착할 착): ㉠일을 해 나가는 태도가 매우 모질고 끈덕짐. ㉡도량이 몹시 좁음. ㉣잔인하고 끔찍스러움.
- ㉣ 타기(唾棄: 唾 침 타/棄 버릴 기): 침을 뱉듯이 버린다는 뜻으로, 업신 여기거나 아주 더럽게 생각하여 돌아보지 않고 버림을 이르는 말.

15. 다음 중 가전체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傳記) 형식으로 기록한 문학 작품이다.
- ② 고려 중기 이후 크게 유행하였으며, 조선 시대에도 꾸준히 창작되었다.
- ③ 고려 신흥 사대부들의 집단 창작물로,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
- ④ 주요 작품으로 「공방전」, 「죽부인전」, 「저생전」 등이 있다.

15 ㉢ 고전문학-가전체

㉢ 가전체는 고려 신흥사대부들의 작품으로서,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개인 창작물이며, 집단창작물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가전체(假傳體) 문학은 어떤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 하여 그 일대기를 허구적으로 기록한 품이다.
- ② 고려 중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문인들 사이에서 신진 사대부들의 당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물에 대한 관심 속에서 발전하였다.
- ④ 주요 작품으로 「공방전」, 「죽부인전」, 「저생전」 등이 있다. 임춘의 「공방전」은 '돈(엽전)'을, 이곡의 「죽부인전」은 '대나무'를, 이첨의 「저생전」은 종이를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이다.

16. 다음 중 속담의 의미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달걀에도 뼈가 있다: 뜻하지 않은 방해가 끼어 재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눈 온 뒤에는 거지 빨래한다: 눈이 온 다음 날은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재미난 골에 범 난다: 재미있다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때리는 시늉하면 우는 시늉을 한다: 주관 없이 남이 하는 대로만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 국어생활-속담

㉣의 '때리는 시늉하면 우는 시늉을 한다'는 서로 손발이 잘 맞는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주관 없이 남이 하는 대로만 따라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은 산이 우니 그 속에 있는 돌[산돼지]도 덩달아 운다는 뜻으로, '산이 우니 돌이[산돼지가] 운다'이다.

[오답 풀이]

- ① '계란유골(鷄卵有骨)'의 의미로, 늘 일이 잘 안 되던 사람이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났건만, 그 일마저 역시 잘 안됨을 이르는 말.
- ② 눈이 온 다음 날은 거지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빨아 입을 만큼 따스하다는 말.
- ③ ㉠편하고 재미있다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 ㉡지나치게 재미있으면 그 끝에 가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김을 이르는 말.

17. 이 작품에 활용된 시점(視點)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 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뛰-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걸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① 서술자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 장면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전달하여 극적 효과를 야기한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12월 22일 경찰공무원

2018. 12. 22.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② 중심인물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아 긴장감과 경이감을 조성하며, 어떠한 인물을 관찰자로 설정했는가에 따라 소설의 효과가 달라진다.
- ③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멀지만, 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가깝다.
- ④ 서술자의 내면적 갈등이나 감정 등의 심리 변화를 생생하게 전해 줄 수 있으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17 ④ 현대소설-소설의 시점

제시 작품은 이상의 '날개'로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 시점은 인물의 내면 상황, 즉 심리 묘사와 내부 묘사에 알맞은 수법이다. 인물과 독자 사이의 심적 거리가 가까우며, 독자에게 신뢰감 친근감을 주지만, 인간의 외면 세계를 객관적으로 그리는 데는 3인칭 시점만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서간체 소설이라든지 사소설, 심리 소설 등에 주로 쓰인다.

[오답 풀이]

- ①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서술자(작가)가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 또는 3인칭 제한적 시점이라고도 한다. 서술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외부적인 사실만을 관찰하고 묘사한다. 극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외부적인 사실만을 관찰하고 묘사한다. 극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을 지닌다. 현대 사실주의 소설에 주로 쓰인다.
- ② 1인칭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중의 부수적 인물(관찰자)이 주인공에 대하여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서술 형태이다.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긴장감과 경이감을 자아낸다. 서술자는 관찰자 이상의 역할은 없으며 초점은 주인공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서술 방법은 1인칭으로 되어 있고, 주된 이야기는 관찰자의 눈에 비친 바깥 세계이다. 이 경우 주인공의 모든 것을 관찰자가 표현하기 때문에 작가는 객관성을 유지하지만, 관찰자 '나'를 통해 서술하는 초점의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작가가 주인공에 대한 관찰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자를 통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인공의 어떤 측면을 좀더 객관화 시켜 드러낼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관찰자의 관찰의 기회가 제한되고, 또 서술자는 일종의 해설자가 되어 작품을 설명해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 ③은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18. 다음 중 문학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카당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럽 각지로 퍼진 퇴폐적인 정신적 경향을 말한다.
- ② 신비평: 작품을 독립된 자율체로 보고, 언어의 의미와 애매성, 이미지 등의 분석을 통해 작품의 총체적 뜻을 파악하려는 비평을 말한다.
- ③ 추체험: 작품을 읽으며 독자가 작품 속의 인물과 같은 입장에서 그 작품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삼일치의 법칙: 희곡 구성상의 법칙으로 인물, 시간, 장소의 일치를 말한다.

18 ④ 문학-용어의 개념

'삼일치(三一致)의 법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詩學)에서 유래된 17~18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연극의 기본 법칙으로 시간, 장소, 행동의 세 가



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극의 행위(줄거리)는 일관된 단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행위의 통일, ② 극의 행위는 지속 시간이 1일 24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시간의 통일, ③ 극의 행위가 전개되는 장소는 5막을 통하여 동일한 장소여야 한다는 장소의 통일을 말한다. 따라서 ④의 '인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데카당스(Décadence)는 불어로 '쇠락', '쇠퇴', '퇴폐'를 의미하고, 퇴당파(頹唐派)·퇴폐파(頹廢派)라고도 한다. '윤리적 타락'이라는 본래의 뜻에서 19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문학 사조의 하나를 일컫는 말. 기존의 사회 규범 및 도덕을 비판 또는 반대하는 경향으로서, 19세기 말, 절망 끝에 관능적인 자극이나 도취(陶醉)를 찾은 퇴폐적인 예술가들인 보들레르, 말라르메, 베를렌 등이 대표적이다.
- ② 신비평(新批評)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문예 비평으로서, 작품을 작가나 시대, 또는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보려는 태도를 부정하고 철저하게 작품 그 자체만으로 분석할 것을 주장하면서, 특히 작품 본문에 밀착하여 작품에 쓰인 언어의 기능을 세세히 비평하려고 하였다.
- ③ 추체험(追體驗)이란 다른 사람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처럼 느끼는 것, 또는 이전 체험을 다시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감정이입'을 뜻한다.

1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서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야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 ① 주인공이 하루 동안 경성역에 머물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정밀하게 묘사한 소설이다.
- ② 주인공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다.
- ③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 ④ 이 작품의 작가는 『천변풍경』, 『감오농민전쟁』 등을 썼다.

19 ① 현대소설-작품 및 작가

제시작품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다. 1일 동안의 여로 형식으로서, 외출해서 '집 → 천변길 → 종로 네거리 → 화신 상회 → 전자 안

2018. 12. 22.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조선 은행 앞 → 다방 → 거리 → 경성역 → 조선 은행 앞 → 다방 → 거리 → 다방 → 거리 → 식당 → 거리 → 다방 → 거리 → 술집 → 카페 → 종로 네거리 → 집'으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구보(仇甫)의 의식 세계가 주요 내용이다. 즉 작중 화자의 관찰과 심리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② 주인공이 경성역 주변 풍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암울한 인간 군상이며, 끝내 주인공은 군중 속의 고독 즉 우울함을 확인한 채 그 곳을 떠난다.

③, ④ 박태원은 1930년대의 대초적인 모더니즘 소설가로 1930년대에 '천변풍경',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을 발표했다. 한국전쟁 때 월북하여 익산민란을 형상화한 '계명산천은 밝았느냐'를 1963년 발표했다. 그리고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은 19세기 말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북한에서 창작한 대한 역사소설이다.

20.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흄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꿀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간간히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 ② 후각, 촉각, 시각적 이미지가 두루 활용되었다.
- ③ 계절적 배경은 이른 봄이다.
- ④ 급격한 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20 ④ 현대시-작품의 표현상 특징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라는 작품이다. 194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여 그리워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화자의 한(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④의 '급격한 산업화'와는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 ① 서술어 '떠내려간다, 눈물 지운다. 휩쓸어 간다' 등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 ② '내음새'는 후각,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는 촉각, '산 짐승의 우는 소리. 잔나비 우는, 누룩이 디디는 소리'은 청각, 전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였다.
- ③ 1연의 '흄이 풀리는 내음새'는 봄이 오고 있음을 후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의 시작을 뜻한다.

※출전: 오장환, '고향 앞에서'

1. 해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여 그리워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화자의 한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고향을 떠난 화자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고 고향 근처의 주막에서 고향 소식을 듣고자 한다. 그러나 화자가 그리워하는 평화로웠던 고향은 과거의 모습일 뿐, 현재의 고향은 쓸쓸하고 적막하다.
2. 핵심 정리
 - 1) 어조: 회한과 자책 속에서 쓸쓸하고 애잔한 어조
 - 2) 표현
 - ① 후각, 청각, 촉각, 시각 등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함
 - ②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그리움을 강조함
 - 3) 구성
 - 1연: 해빙이 될 무렵의 강가
 - 2연: 사람이 그리워 나룻가에서 서성거림
 - 3연: 고향의 쓸쓸한 주막
 - 4연: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감
 - 5,6연: 귀향하고 싶은 심정
 - 4) 주제: 잃어버린 고향 앞에서 느끼는 향수